

## 청년 첫 일자리 현황: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2023. 11. 15

성인지데이터센터 한진영 전문연구원

### [요약]

- 1) 2023년 15-34세 청년층은 25-29세, 고졸이하, 미혼이 가장 많음.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해 25-29세와 대졸이상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유배우 비중이 낮아짐.
- 2) 2023년 20-34세 청년층은 첫 일자리 취업 시 97.2%가 임금근로자로 취업하며 비기간제상용은 56.9%, 기간제는 40.3%임.
- 3)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인 집단은 여성과 남성 모두 연령은 30-34세, 교육정도는 대졸 이상, 혼인상태는 유배우자의 비중이 더 높음.
- 4) 청년층 첫 일자리의 특성임.
  - 비기간제상용인 경우 기간제에 비해 전일제의 비중이 높음.
  - 첫 일자리 월평균 급여액은 비기간제상용 및 기간제 여성, 기간제 남성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나 비기간제상용 남성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임.
  - 첫 일자리 직업은 여성은 관리자·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판매 종사자에 집중된 반면 남성은 모든 직업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함.
  - 일자리 유지 기간은 비기간제상용이면서 첫 일자리가 현 직장인 여성 49개월, 같은 조건의 남성 44개월 순임.
  - 비기간제상용과 기간제인 남녀 모두 첫 일자리 퇴직 사유는 '근로여건 불만족'임.
- 5)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 상용일 때 현재 일자리도 비기간제상용인 경우는 69.9%이지만 첫 일자리가 기간제일 때 현재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인 경우는 36.6%로 33.6%p의 차이가 있음. 차이가 있음.
  - 여성과 남성 모두 첫 일자리를 기간제로 시작한 경우 비기간제상용직의 이행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은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인 비기간제상용직과 같은 일자리를 첫 일자리로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취업 준비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요인일 수 있음.
  - 일자리가 없으나 일자리를 구하지도 않았다는 응답은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에 비해 기간제가 더 높고, 성별로 비교하면 여성이 더 높아 일자리가 없지만 구하지도 않은 청년층의 원인이 무엇인지 추가적인 분석을 통한 정책지원이 필요함.

## I. 서론

청년층의 노동 시장 참여는 생애주기상 기대되는 과업이면서 이후에 기대되는 결혼이나 가족형성을 실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토대임.

- 청년층이 학교 생활을 마치고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청년 개인의 삶에서는 생애주기상 기대되는 과업을 이행하는 것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기간에 걸쳐 투자된 인적 자원이 적합한 일자리를 얻게 되면 결국 개인적인 수준이나 사회적인 수준에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음.
- 평생 직장, 종신 고용의 경향이 약해지고 이직이 자유롭게 일어나는 것으로 노동 시장은 변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국의 노동시장은 이중노동시장으로 1차 시장과 2차 시장이 분리되어 있으며, 이보다 중요한 점은 1차 시장과 2차 시장 간 이동 또한 활발하지 못하다는 점임.
  - 통상 1차 노동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로 구성된 일자리이고 2차 노동시장은 비교적 불안정한 일자리로 구성되어 있음. 예를 들어 정규직은 1차 노동시장, 비정규직은 2차 노동시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비정규직으로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개인에게 정규직으로 이동하기 위해 경력을 쌓는 가교인지 아니면 오히려 낙인 효과를 갖는 함정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으며, 가교인 증거도 있지만 함정이라는 주장 또한 있음.
- 이러한 한국 사회의 노동 시장 특성에 따라 청년층은 첫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시작하고자 하는 전략을 취하게 되어 전반적으로 노동 시장의 진입이 지연되고 차별화 전략으로 인적자원을 계속해서 축적하고자 하여 과도한 투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 인적자원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결국 청년층의 부모세대의 부담, 청년층에게는 취업 이후에 기대되는 결혼, 가족형성과 같은 생애주기상 과업의 지연 등이 따라올 수 밖에 없어 개인적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게 됨.
- 본 리포트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청년층 첫 일자리 상황이 어떠한지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II. 본론

### 1.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를 통해 20-34세 청년층의 첫 일자리 현황을 살펴봄

-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는 청년층의 취업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매년 5월에 실시되고 있음. 조사 대상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 가구원 중 5월 15일 기준 만 15-34세 연령층임(통계청(2023.7, 25쪽)<sup>1)</sup>.
- 본 리포트에서는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분석하며, 연령은 20-34세로 제한하여 분석하며, 첫 일자리의 고용형태를 ‘비기간제상용’과 ‘기간제’로 구분하여 성별로 분석하였음.
  - 비기간제상용 : 상용근로자이면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음
  - 기간제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그리고 일용근로자
- 주요한 분석 내용으로 15-34세 청년층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20-34세 청년층의 첫 일자리와 인구통계학적 특성, 20-34세 청년층의 첫 일자리 현황(첫 일자리 당시 취업 형태, 전일제 여부, 월평균급여액, 직업별 분포, 첫 일자리에 진입하기까지 기간, 첫 직장 유지기간, 첫 직장 퇴직 사유)를 살펴봄. 또한 첫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의 고용형태를 교차분석함.
- 변수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는 첫 일자리 진입 시점이 아닌 조사 시점 기준임.

변수	설명
고용형태	· 비기간제 상용(상용+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음) · 기간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금근로자 모두)
인구통계학적 특성	· 성(여성, 남성) · 연령(20-24세/25-29세/30-34세) · 교육정도(고졸이하/전문대졸/대졸이상) · 혼인상태(미혼/기혼/이혼사별별거) ※.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는 조사시점 기준임.
첫 일자리 당시 취업 형태	비기간제상용, 기간제, 자영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일자리 특성	전일제 여부 월평균 급여액 (100만원 구간별) 직업별, 분포
진입 및 유지 기간, 사유	직업에 진입하기까지 기간 (개월) 첫 직장 유지기간 (개월) 첫 직장 퇴직 사유

1) 통계청(2023.7).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25쪽.

## 2. 청년층 인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023년 15-34세 청년층은 25-29세, 고졸이하 그리고 미혼의 비중이 가장 높음

- 2023년 15-34세 청년층은 25-29세 3,513천 명(29.6%), 고졸이하 6,314천 명(53.2%), 미혼 9,918천 명(83.6%)이 가장 많음.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해 25-29세와 대졸이상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미혼의 비중이 높아짐.
  - 2023년 여성과 남성 청년층의 연령 구성을 보면 여성은 20-24세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4.0%p 높고, 25-34세의 비중이 낮음. 교육정도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대졸이상은 6.8%p, 전문대졸은 3.7%p 더 높고 고졸이하는 10.4%p 낮음. 혼인상태는 여성 유배우자 비율이 남성에 비해 7.1%p 더 높고, 미혼 비율이 7.7%p 더 낮음.
    - 2023년 15-34세 청년층은 11,864천 명으로, 25-29세 3,513천 명(29.6%), 고졸이하 6,314천 명(53.2%), 미혼 9,918천 명(83.6%)의 비중이 가장 높음.
    - 2023년 15-34세 여성은 전체 5,822천 명으로 25-29세 1,673천 명(28.7%), 고졸이하 2,790천 명(47.9%), 미혼 4,639천 명(79.7%)의 비중이 가장 높음.
    - 2023년 15-34세 남성은 전체 6,042천 명으로 25-29세 1,840천 명(30.5%), 고졸이하 3,524천 명(58.3%), 미혼 5,280천 명(87.4%)의 비중이 가장 높음.
  - 15-34세 청년층은 2013년 13,487천 명, 2023년 11,864천 명으로 2013년에 비해 2023년이 1,623천 명 적음. 2013년에 비해 2023년은 25-29세의 비중이 높아지고, 15-19세의 비중이 낮아짐. 또한 대졸이상의 비중이 높아지고, 미혼의 비율이 높아짐.

〈표 1〉 15-34세의 청년층 인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2013, 2023)

(단위 : 천 명, %)

15-34세		여성				남성				전체			
		2023		2013		2023		2013		2023		201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령	15-19세	1,109	19.1	1,595	23.7	1,151	19.1	1,688	25.0	2,261	19.1	3,283	24.3
	20-24세	1,414	24.3	1,568	23.3	1,229	20.3	1,308	19.3	2,643	22.3	2,876	21.3
	25-29세	1,673	28.7	1,587	23.6	1,840	30.5	1,694	25.0	3,513	29.6	3,281	24.3
	30-34세	1,626	27.9	1,972	29.3	1,822	30.2	2,074	30.7	3,448	29.1	4,047	30.0
	전체	5,822	100.0	6,723	100.0	6,042	100.0	6,764	100.0	11,864	100.0	13,487	100.0
교육 정도	고졸이하	2,790	47.9	3,591	61.7	3,524	58.3	4,170	53.4	6,314	53.2	7,761	57.5
	전문대졸	990	17.0	1,405	14.3	805	13.3	966	20.9	1,795	15.1	2,371	17.6
	대졸이상	2,043	35.1	1,727	24.1	1,712	28.3	1,627	25.7	3,755	31.7	3,354	24.9
	전체	5,822	100.0	6,723	100.0	6,042	100.0	6,764	100.0	11,864	100.0	13,487	100.0
혼인 상태	미혼	4,639	79.7	4,679	69.6	5,280	87.4	5,409	80.0	9,918	83.6	10,087	74.8
	유배우자	1,132	19.4	2,011	29.9	743	12.3	1,335	19.7	1,875	15.8	3,346	24.8
	이혼,사별	52	0.9	33	0.5	19	0.3	20	0.3	71	0.6	54	0.4
	전체	5,822	100.0	6,723	100.0	6,042	100.0	6,764	100.0	11,864	100.0	13,487	100.0

주 : 가중치 적용

자료 : 통계청,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 3. 첫 일자리 취업 당시 고용 형태

20-34세 청년층 첫 일자리 취업 시 임금근로자 취업 97.2%, 이 중 비기간제상용으로 취업은 여성 58.7%, 남성 55.1%임

- 2023년 20-34세 청년층은 첫 일자리 취업 시 97.2%가 임금근로자로 취업하며 비기간제상용은 56.9%, 기간제는 40.3%로 비기간제상용의 비중이 높음. 남녀 모두 첫 일자리 고용형태는 비기간제상용이 가장 높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3.6%p 더 높음.
- 2023년 20-34세 첫 일자리 취업 당시 97.2%가 임금근로자로 취업하며, 이 중 비기간제상용 56.9%, 기간제 40.3%임. 2023년 여성과 남성 모두 비기간제상용으로 첫 일자리에 취업하는 비중이 가장 높지만 여성은 남성에 비해 비기간제상용으로 취업하는 비중이 3.6%p 더 높고 기간제의 비중은 2.8%p 낮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안정적인 일자리로 첫 진입하는 것으로 보임.
  - 2023년 20-34세 청년층의 첫 일자리 취업 당시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취업자 7,132천 명 중 비기간제상용 4,060천 명(56.9%), 기간제 2,876천 명(40.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19천 명(1.7%),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45천 명(0.6%), 무급가족종사자 33천 명(0.5%) 순으로 높음.
  - 여성은 비기간제상용 2,110천 명(58.7%), 기간제 1,400천 명(38.9%),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54천 명(1.5%), 무급가족종사자 16천 명(0.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5천 명(0.4%) 순으로 높음.
  - 남성은 비기간제상용 1,950천 명(55.1%), 기간제 1,475천 명(41.7%),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65천 명(1.8%),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30천 명(0.9%), 무급가족종사자 17천 명(0.5%) 순으로 높음.

〈표 2〉 2023년 성별 첫 일자리 취업 당시 고용형태(20-34세)

(단위 : 천 명, %, %p)

		여성		남성		전체		여성-남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임금근로자	비기간제상용	2,110	58.7	1,950	55.1	4,060	56.9	3.6
	기간제	1,400	38.9	1,475	41.7	2,876	40.3	-2.8
비임금근로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54	1.5	65	1.8	119	1.7	-0.3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5	0.4	30	0.9	45	0.6	-0.5
	무급가족종사자	16	0.4	17	0.5	33	0.5	-0.1
전체		3,595	100.0	3,537	100.0	7,132	100.0	0

주 : 가중치 적용  
 자료 : 통계청,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 4. 비기간제상용 여부에 따른 첫 일자리 현황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인 집단은 남녀 모두 연령은 30-34세, 교육정도는 대졸이상, 혼인상태는 유배우자 비중이 첫 일자리가 기간제인 집단에 비해 높음.

-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인 집단은 여성과 남성 모두 연령은 30-34세, 교육정도는 대졸이상, 혼인상태는 유배우자 비중이 첫 일자리가 기간제인 집단에 비해 높음.
  - 여성은 첫 일자리가 기간제인 집단에 비해 비기간제상용인 집단의 연령은 30-34세(4.3%p), 교육정도는 대졸이상(8.4%p) 그리고 혼인상태는 유배우자(2.0%p) 비중이 더 높음.
    - 2023년 20-34세 첫 일자리의 고용형태가 비기간제상용인 여성은 30-34세 917천 명(43.5%), 대졸이상 1,130천 명(53.6%), 미혼 1,474천 명(69.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첫 일자리가 기간제인 여성은 25-29세 579천 명(41.4%), 대졸이상 633천 명(45.2%), 미혼 991천 명(70.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남성은 첫 일자리가 기간제인 집단에 비해 비기간제상용인 집단의 연령은 30-34세(10.1%p), 교육정도는 대졸이상(15.0%p) 그리고 혼인상태는 유배우자(7.2%p) 비중이 더 높음.
    - 2023년 20-34세 첫 일자리의 고용형태가 비기간제상용인 남성은 30-34세 1,033천 명(53.0%), 대졸이상 942천 명(48.3%), 미혼 1,481천 명(76.0%)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첫 일자리가 기간제인 남성은 30-34세 633천 명(42.9%), 고졸이하 685천 명(46.4%), 미혼 1,227천 명(83.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과 기간제인 경우 모두 여성은 대졸이상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남성은 비기간제상용인 경우 대졸이상, 기간제인 경우 고졸이하의 비중이 높아 차이가 나타남.
  -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인 집단의 경우 남녀 모두 30-34세의 비중이 가장 높음.
    -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인 집단은 남녀 모두 30-34세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여성 43.5%, 남성 53.0%) 여성은 남성에 비해 20-24세(8.0%p)와 25-29세(1.5%p)가 더 높고, 여성에 비해 남성은 30-34세(9.5%p)가 더 높음.
    - 첫 일자리가 기간제인 집단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20-24세(4.4%p)가 더 높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30-34세(3.7%p), 25-29세(0.6%p)가 더 높음.
  - 여성은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과 기간제 모두 대졸이상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남성은 비기간제상용인 경우 대졸이상이 가장 높고 기간제인 경우는 고졸이하의 비중이 가장 높아 여성이 상대적으로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학력의 비중이 높음.
    -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인 집단은 여성과 남성 모두 대졸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여성이 남성에 비해 5.3%p, 전문대졸은 3.5%p 더 높고 고졸이하의 남성이 8.8%p 더 높아 비기간제상용이 첫 일자리인 경우 여성의 전문대졸 이상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첫 일자리가 기간제인 집단에서 여성은 대졸이상, 남성은 고졸이하가 가장 높으며 여성의 대졸이상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11.9%p 더 높고 고졸이하는 18.5%p 더 낮음.

- 기간제에 비해 비기간제상용인 집단은 여성과 남성 간 유배우자 비중 차이가 적음.
  -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과 기간제인 집단 모두 여성과 남성의 혼인상태가 미혼이 가장 높음. 혼인상태가 유배우자인 경우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비기간제상용 5.9%p, 기간제 11.1%p 더 높아 비기간제상용에서 성별 비중 차이가 적음.

〈표 3〉 성별 비기간제상용여부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 천 명, %, %p)

구분	2023년, 20-34세		여성		남성		전체		여성-남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비기간제상용	연령	20-24세	342	16.2	160	8.2	501	12.3	8.0
		25-29세	852	40.4	758	38.9	1,609	39.6	1.5
		30-34세	917	43.5	1,033	53.0	1,950	48.0	-9.5
		전체	2,110	100.0	1,950	100.0	4,060	100.0	0.0
	교육정도	고졸이하	421	19.9	560	28.7	980	24.1	-8.8
		전문대졸	559	26.5	449	23.0	1,008	24.8	3.5
		대졸이상	1,130	53.6	942	48.3	2,072	51.0	5.3
	전체	2,110	100.0	1,950	100.0	4,060	100.0	0.0	
	혼인상태	미혼	1,474	69.8	1,481	76.0	2,955	72.8	-6.2
		유배우자	620	29.4	457	23.5	1,077	26.5	5.9
		이혼.사별	17	0.8	11	0.6	28	0.7	0.2
		전체	2,110	100.0	1,950	100.0	4,060	100.0	0.0
기간제	연령	20-24세	272	19.5	222	15.1	495	17.2	4.4
		25-29세	579	41.4	620	42.0	1,199	41.7	-0.6
		30-34세	549	39.2	633	42.9	1,182	41.1	-3.7
		전체	1,400	100.0	1,475	100.0	2,876	100.0	0.0
	교육정도	고졸이하	390	27.9	685	46.4	1,075	37.4	-18.5
		전문대졸	377	26.9	299	20.3	676	23.5	6.6
		대졸이상	633	45.2	492	33.3	1,125	39.1	11.9
	전체	1,400	100.0	1,475	100.0	2,876	100.0	0.0	
	혼인상태	미혼	991	70.8	1,227	83.2	2,219	77.1	-12.4
		유배우자	383	27.4	240	16.3	624	21.7	11.1
		이혼.사별	25	1.8	8	0.5	33	1.2	1.3
		전체	1,400	100.0	1,475	100.0	2,876	100.0	0.0
전체	연령	20-24세	614	17.5	382	11.2	996	14.4	6.3
		25-29세	1,431	40.8	1,378	40.2	2,808	40.5	0.6
		30-34세	1,466	41.7	1,666	48.6	3,131	45.1	-6.9
		전체	3,511	100.0	3,425	100.0	6,936	100.0	0
	교육정도	고졸이하	811	36.3	1,244	23.1	2,055	29.6	13.2
		전문대졸	936	21.8	748	26.7	1,684	24.3	-4.9
		대졸이상	1,764	41.8	1,433	50.2	3,197	46.1	-8.4
	전체	3,511	100.0	3,425	100.0	6,936	100.0	0	
	혼인상태	미혼	2,465	70.2	2,709	79.1	5,174	74.6	-8.9
		유배우자	1,003	28.6	698	20.4	1,701	24.5	8.2
		이혼.사별	42	1.2	19	0.6	61	0.9	0.6
		전체	3,511	100.0	3,425	100.0	6,936	100.0	0

주 : 1) 가중치 적용  
 2) 연령, 교육정도 및 혼인상태는 조사 시점 기준 상태임.  
 자료 : 통계청,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여성과 남성 모두 비기간제상용과 기간제일 때 모두 전일제의 비중이 높지만 비기간제상용일 때 전일제의 비중이 더 높음**

- 여성과 남성 모두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과 기간제일 때 모두 전일제의 비중이 더 높지만 비기간제상용에 비하여 기간제일 때 시간제의 비중이 더 높음(여성 19.7%, 남성 23.5%).
  - 여성과 남성 모두 첫 일자리의 고용형태가 비기간제상용(여성 90.0%, 남성 93.0%)과 기간제(여성 70.3%, 남성 69.5%) 모두 전일제의 비중이 높지만 기간제에 비해 비기간제상용의 전일제 비중이 여성은 19.7%p 남성은 23.5%p 더 높음
    - 첫 일자리가 전일제로 고용된 여성은 비기간제상용 1,900천명(90.0%), 기간제 984천 명(70.3%)이고, 첫 일자리가 시간제로 고용된 여성은 비기간제상용 210명(10.0%), 기간제 416천 명(29.7%)으로 비기간제상용과 시간제 모두 대부분 전일제로 고용되지만 기간제에서 시간제의 비중이 높음.
    - 첫 일자리가 전일제로 고용된 남성은 비기간제상용 1,812천명(93.0%), 기간제 1,026천 명(69.5%)이고, 첫 일자리가 시간제로 고용된 남성은 비기간제상용 137천 명(7.0%), 기간제 450천 명(30.5%)로 여성과 마찬가지로 비기간제상용과 시간제 모두 대부분 전일제로 고용되지만 기간제에서 시간제의 비중이 높음.
  - 첫 일자리가 전일제인 경우 비기간제상용은 남성이 더 높고(3.0%p), 기간제인 경우는 여성이 더 높음(0.8%p).
    - 첫 일자리가 전일제로 고용되었을 때 비기간제상용 여성에 비해 남성이 3.0%p 더 높고, 시간제일 때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0.8%p 더 높음. 첫 일자리가 시간제일 때 비기간제상용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3.0%p 더 높고, 기간제일 때는 여성이 0.8%p 더 낮음.

〈표 4〉 성별 비기간제상용여부별 첫 일자리 전일제 여부

(단위 : 천 명, %, %p)

	2023년, 20-34세	여성		남성		전체		여성-남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비기간제상용	전일제	1,900	90.0	1,812	93.0	3,712	91.4	-3.0
	시간제	210	10.0	137	7.0	348	8.6	3.0
	전체	2,110	100.0	1,950	100.0	4,060	100.0	0.0
기간제	전일제	984	70.3	1,026	69.5	2,010	69.9	0.8
	시간제	416	29.7	450	30.5	866	30.1	-0.8
	전체	1,400	100.0	1,475	100.0	2,876	100.0	0.0
전체	전일제	2,884	82.2	2,838	82.9	5,722	82.5	-0.7
	시간제	627	17.8	587	17.1	1,214	17.5	0.7
	전체	3,511	100.0	3,425	100.0	6,936	100.0	0.0

주 : 가중치 적용

자료 : 통계청,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첫 일자리 월평균 임금은 비기간제상용인 남성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가장 높지만 기간제 여성과 기간제 남성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가장 높음**

- 비기간제상용 여성과 기간제인 남녀 모두 첫 일자리 월평균 임금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가장 높지만, 비기간제상용인 남성의 월평균 임금액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가장 높음.



-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과 기간제 모두 여성의 첫 일자리 월평균 임금은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가장 높지만 다음으로 비기간제상용은 '200만원-300만원 미만', 기간제는 '100만원 미만'이 높음.
  -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인 여성의 첫 일자리 월평균 임금은 '100-200만원 미만'(1,189천 명, 56.3%), '200-300만원 미만'(713천명, 33.8%) 순으로 높아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전체의 90.1%를 차지함. 기간제와 비교해 '100만원 미만'(14.3%p)이 낮고, '200-300만원 미만'(16.9%p)은 높음.
  - 첫 일자리가 기간제인 여성의 첫 일자리 월평균 임금은 '100-200만원 미만'(856천 명, 61.1%), '100만원 미만'(278천 명, 19.8%), '200-300만원 미만'(237천 명, 16.9%) 순으로 높음.
-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인 남성은 첫 일자리 월평균 임금은 '200-3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순으로 높지만 기간제인 남성은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순으로 높아 비기간제상용과 기간제 간 차이가 있음.
  -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인 남성의 첫 일자리 월평균 임금은 '200-300만원 미만'(855천명, 43.9%), '100-200만원 미만'(785천 명, 40.2%), '300-400만원 미만'(181천 명, 9.3%) 순으로 높음. 기간제와 비교해 '100-200만원 미만'(16.3%p)이 낮고, '200-300만원 미만'(18.3%p)은 높음.
  - 첫 일자리가 기간제인 남성의 월평균 임금은 '100-200만원 미만'(834천 명, 56.5%)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200-300만원 미만'(378천 명, 25.6%), '100만원 미만'(227천 명, 15.4%) 순으로 높음.
-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과 기간제 모두 첫 일자리 월평균 임금은 남성에 비해 여성은 '200만원 미만'의 비중이 높은 반면 여성에 비해 남성은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의 비중이 더 높음.
  -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인 경우의 월평균 임금은 '100-200만원 미만'(16.1%p), '100만원 미만'(0.7%p), '500만원 이상'(0.1%p)은 여성이 더 높지만 '200-300만원 미만'(10.1%p), '300-400만원 미만'(5.5%p), '400-500만원 미만'(1.3%p)은 남성이 더 높아 월평균 임금이 높은 구간에서 남성의 비중이 더 높은 편임.
  - 첫 일자리가 기간제인 경우 월평균 임금은 '100-200만원 미만'(4.6%p), '100만원 미만'(4.4%p)에서는 여성이 더 높지만 '200-300만원 미만'(8.7%p), '300-400만원 미만'(0.2%p), '500만원 이상'(0.2%p)은 남성이 더 높아 비기간제상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월평균 임금이 더 높은 구간에서 남성의 비중이 더 높은 편임.

〈표 5〉 성별 비기간제상용여부별 첫 일자리 월평균 임금

(단위 : 천 명, %, %p)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여성-남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비기간제상용	100만원 미만	115	5.5	94	4.8	209	5.2	0.7
	100-200만원 미만	1,189	56.3	785	40.2	1,973	48.6	16.1
	200-300만원 미만	713	33.8	855	43.9	1,568	38.6	-10.1
	300-400만원 미만	79	3.8	181	9.3	260	6.4	-5.5
	400-500만원 미만	11	0.5	34	1.8	45	1.1	-1.3
	500만원 이상	3	0.2	1	0.1	4	0.1	0.1
	전체	2,110	100.0	1,950	100.0	4,060	100.0	0.0
기간제	100만원 미만	278	19.8	227	15.4	505	17.6	4.4
	100-200만원 미만	856	61.1	834	56.5	1,690	58.8	4.6
	200-300만원 미만	237	16.9	378	25.6	615	21.4	-8.7
	300-400만원 미만	24	1.7	28	1.9	52	1.8	-0.2
	400-500만원 미만	5	0.4	6	0.4	11	0.4	0.0
	500만원 이상	1	0.0	2	0.2	3	0.1	-0.2
	전체	1,400	100.0	1,475	100.0	2,876	100.0	0.0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여성-남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00만원 미만	393	11.2	321	9.4	714	10.3	1.8
	100~200만원 미만	2,044	58.2	1,618	47.2	3,663	52.8	11.0
	200~300만원 미만	950	27.1	1,233	36.0	2,183	31.5	-8.9
	300~400만원 미만	103	2.9	208	6.1	312	4.5	-3.2
	400~500만원 미만	16	0.5	41	1.2	57	0.8	-0.7
	500만원 이상	4	0.1	3	0.1	7	0.1	0.0
전체	3,511	100.0	3,425	100.0	6,936	100.0	0.0	

주 : 가중치 적용

자료 : 통계청,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대출이상 여성과 남성 모두 비기간제상용에 취직하기까지 기간제에 비해 소요되는 기간 더 길어**

○ 첫 일자리에 취업하기까지 걸린 기간 비기간제상용과 기간제 모두 고졸이하에서 가장 길어 전문대출이상과 차이가 있음. 대출이상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 비기간제상용이 기간제에 비해 소요되는 기간이 더 길게 나타남.

- 비기간제상용과 기간제가 첫 일자리일 때 모두 전문대출 이상 여성의 첫 일자리까지 소요 기간은 8~9개월이지만 고졸이하는 14개월~20개월로 교육정도별로 차이가 있음.
  - 고졸이하 여성은 비기간제상용으로 취직하기까지 14개월, 기간제로 취직하기까지 20개월이 소요되어 기간제에서 6개월 더 소요됨. 전문대출 여성은 비기간제상용과 기간제 모두 9개월 소요되었음. 대출이상 여성은 비기간제상용이 9개월, 기간제는 8개월 소요되어 비기간제상용 취직 소요 기간이 1개월 더 많음.
-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인 경우 고졸이하와 대출이상 남성은 소요 기간이 기간제보다 더 길게 소요됨.
  - 고졸이하 남성은 비기간제상용으로 취직하기까지 24개월, 기간제는 18개월이 소요되어 비기간제상용에서 6개월 더 소요됨. 전문대출 남성은 비기간제상용과 기간제 모두 10개월 소요됨. 그러나 대출이상 남성은 비기간제상용 12개월, 기간제 8개월 소요되어 비기간제상용이 3개월 더 소요됨.
- 여성이 비기간제상용으로 첫 일자리에 취업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모든 교육수준에서 남성보다 짧음.
  -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인 남녀를 비교해보면 고졸이하의 남성이 여성에 비해 10개월 더 소요되어 차이가 컸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전문대출은 1개월, 대출이상은 3개월 짧게 소요됨.
  - 첫 일자리가 기간제인 남녀를 비교해보면 고졸이하의 여성이 남성에 비해 2개월 더 소요되고 전문대출은 남성이 1개월 더 소요되었음. 대출이상은 동일하게 8개월임.
  - 여성 비기간제상용은 남성에 비해 첫 일자리에 취업하기 까지 소요된 시간이 짧았으나 기간제인 경우는 전문대출이 1개월 더 짧게 소요된 것을 제외하고 대출이상은 동일하거나 고졸이하의 길게 소요됨.

〈표 6〉 성별 교육정도별 첫 일자리 취업 소요 기간

(단위 : 천 명, 개월)

		여성		남성		전체		여성-남성
		기간	빈도	기간	빈도	기간	빈도	
비기간제상용	고졸이하	14	421	24	560	19	980	-10
	전문대출	9	559	10	449	10	1,008	-1
	대출이상	9	1,130	12	942	10	2,072	-2
	전체	10	2,110	15	1,950	12	4,060	-5
기간제	고졸이하	20	390	18	685	18	1,075	2
	전문대출	9	377	10	299	10	676	-1

		여성		남성		전체		여성-남성
		기간	빈도	기간	빈도	기간	빈도	
	대졸이상	8	633	8	492	8	1,125	0
	전체	12	1,400	13	1,475	12	2,876	-1
전체	고졸이하	16	811	20	1,244	19	2,055	-4
	전문대졸	9	936	10	748	10	1,684	-1
	대졸이상	9	1,764	10	1,433	10	3,197	-1
	전체	11	3,511	14	3,425	12	6,936	-3

주 : 1) 가중치 적용  
 2) 교육정도는 조사 시점 기준 상태임.  
 자료 : 통계청,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첫 일자리의 직업은 남성은 여러 직업에 고르게 분포한 반면 여성은 관리자·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판매 종사자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기능·기계숙련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 낮음

○ 20-34세 여성은 첫 일자리의 직업이 관리자·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판매 종사자에 집중되어 있으나 남성은 모든 직업에 여성에 비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여성은 기능·기계숙련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에서 그 비중이 낮음. 그리고 여성과 남성 모두 비기간제상용에 비해 기간제인 경우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비중이 높음.

- 2023년 20-34세 여성의 첫 일자리는 비기간제상용과 기간제 모두 관리자·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판매 종사자가 대부분을 차지했음. 비기간제상용 여성은 기간제에 비해 관리자·전문가(14.0%p), 사무 종사자(3.8%p)의 비중이 높고, 기간제 여성은 비기간제상용에 비해 서비스·판매종사자(12.8%p), 단순노무 종사자(4.3%p)의 비중이 높음.

- 2023년 20-34세 비기간제상용 여성의 첫 일자리 직업은 관리자·전문가 771천 명(36.5%), 사무 종사자 687천 명(32.6%), 서비스·판매 종사자 520천 명(24.6%) 순으로 높음. 취업소요기간을 보면 비기간제상용은 단순노무종사자 18개월, 기능·기계 조작 종사자 15개월, 사무종사자 12개월, 서비스·판매 종사자 9개월, 관리자·전문가 8개월이 소요됨.

- 2023년 20-34세 기간제인 여성의 첫 일자리 직업은 서비스·판매 종사자 523천 명(37.4%), 사무 종사자 403천 명(28.8%), 관리자·전문가 316천 명(22.5%) 순으로 높고, 단순노무종사자 107천 명(7.6%), 기능·기계 조작 종사자 50천 명(3.6%)로 낮은 편임. 취업소요기간을 보면 비기간제상용은 단순노무종사자 27개월, 기능·기계 조작 종사자 19개월, 관리자·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판매 종사자 각 10개월이 소요됨.

- 2023년 20-34세 남성의 첫 일자리는 비기간제상용과 기간제를 비교했을 때 기간제에서 서비스·판매 종사자(15.9%p) 와 단순노무종사자(11.8%p)의 비중이 높고, 관리자·전문가(10.7%p)와 사무종사자(10.4%p)는 기간제에 비해 비기간제상용이 높음.

- 2023년 20-34세 비기간제상용 남성의 첫 일자리 직업은 관리자·전문가 503천 명(25.8%), 기능·기계 조작 종사자 441천 명(22.6%), 서비스·판매 종사자 427천 명(21.9%), 사무 종사자 412천 명(21.1%) 순으로 높음. 취업소요기간을 보면 비기간제상용은 단순노무종사자 21개월, 서비스·판매 종사자 16개월, 사무종사자와 기능·기계 조작 종사자 각 14개월, 관리자·전문가 13개월이 소요됨.

- 2023년 20-34세 기간제인 남성의 첫 일자리 직업은 서비스·판매 종사자 557천 명(37.8%), 단순노무 종사자 295천 명(20.0%), 기능·기계 조작 종사자 236천 명(16.0%), 관리자·전문가 223천 명(15.1%), 사무 종사자 158 천명(10.7%) 순으로 높음. 취업소요기간을 보면 비기간제상용은 단순노무종사자 16개

월, 기능·기계 조작 종사자 15개월, 서비스·판매 종사자 12개월, 사무종사자 11개월, 관리자·전문가 10개월 순으로 높음.

- 여성은 비기간제상용과 기간제인 경우 모두 관리자·전문가, 사무 종사자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높고, 남성은 기능·기계 조작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이 여성에 비해 높음. 비기간제상용과 기간제인 경우 모두 비교적 모든 직업에 고르게 분포하나 여성은 관리자·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판매 종사자에 집중된 편임.

- 2023년 20-34세 비기간제상용의 첫 일자리 직업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사무 종사자(11.5%p), 관리자·전문가(10.7%p), 서비스·판매 종사자(2.7%p)가 더 높고, 여성에 비해 남성은 기능·기계 조작 종사자(19.6%p)와 단순노무종사자(4.9%p)가 높음.

- 2023년 20-34세 기간제의 첫 일자리 직업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사무 종사자(18.1%p), 관리자·전문가(7.4%p)가 더 높고 기능·기계 조작 종사자(12.4%p)와 단순노무종사자(12.4%p)는 남성이 더 높음. 남성과 여성 모두 기간제에서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비중은 높지만 차이는 0.4%p로 매우 적음.

〈표 7〉 성별 비기간제상용여부별 첫 일자리 직업 및 직업별 취업소요기간

(단위 : 천 명, %, 개월, %p)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취업소요기간 (2023)			여성-남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여성	남성	여성-남성		
비기간제상용	관리자·전문가	771	36.5	503	25.8	1,274	31.4	8	13	-5	10.7
	사무 종사자	687	32.6	412	21.1	1,099	27.1	12	14	-2	11.5
	서비스·판매 종사자	520	24.6	427	21.9	947	23.3	9	16	-7	2.7
	기능·기계조작 종사자	63	3.0	441	22.6	504	12.4	15	14	1	-19.6
	단순노무 종사자	70	3.3	161	8.2	231	5.7	18	21	-3	-4.9
	전체	2,110	100.0	1,950	100.0	4,060	100.0	10	15	-5	0.0
기간제	관리자·전문가	316	22.5	223	15.1	538	18.7	10	10	0	7.4
	사무 종사자	403	28.8	158	10.7	561	19.5	10	11	-1	18.1
	서비스·판매 종사자	523	37.4	557	37.8	1,081	37.6	10	12	-2	-0.4
	기능·기계조작 종사자	50	3.6	236	16.0	287	10.0	19	15	4	-12.4
	단순노무 종사자	107	7.6	295	20.0	402	14.0	27	16	11	-12.4
	전체	1,400	100.0	1,475	100.0	2,876	100.0	12	13	-1	0.0
전체	관리자·전문가	1,086	30.9	726	21.2	1,813	26.1	8	12	-4	9.7
	사무 종사자	1,091	31.1	569	16.6	1,660	23.9	11	13	-2	14.5
	서비스·판매 종사자	1,043	29.7	985	28.7	2,028	29.2	10	14	-4	1.0
	기능·기계조작 종사자	113	3.2	678	19.8	790	11.4	16	15	1	-16.6
	단순노무 종사자	177	5.0	456	13.3	633	9.1	24	18	6	-8.3
	전체	3,511	100.0	3,425	100.0	6,936	100.0	11	14	-3	0.0

주 : 1) 가중치 적용

2)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의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0.2%(12천 명), 여성 0.0%(1천 명), 남성 0.3%(11천 명)로 분석에는 포함시켰으나 결과표에는 제시하지 않아 제시된 각 항목의 합이 100.0%가 아님.

자료 : 통계청,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이면서 첫 일자리가 현 직장인 경우 여성 49개월, 남성 44개월로 약 4년을 유지하나 기간제이면서 첫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 여성 15개월, 남성 14개월 유지함.

- 일자리 유지 기간은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이면서 첫 일자리가 현 직장인 경우의 여성이 49개월로 가장 길고 다음으로 같은 조건의 남성이 44개월을 유지함.
  - **여성의 일자리 유지 기간은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이면서 첫 일자리가 현 직장인 경우 49개월, 비기간제상용이면서 첫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 24개월, 기간제이면서 첫 일자리가 현 직장인 경우 23개월, 기간제이면서 첫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 15개월 순으로 높음.**
    - 여성은 첫 일자리가 현 직장인 경우 유지 기간은 비기간제상용 49개월(756천 명), 기간제 23개월(178천 명)로 비기간제상용의 유지기간이 26개월 더 길. 첫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 유지 기간은 비기간제상용 24개월(1,354천 명), 기간제 15개월(1,223천 명)로 비기간제상용의 유지기간이 9개월 더 길.
  - **남성의 일자리 유지 기간은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이면서 첫 일자리가 현 직장인 경우 44개월, 비기간제상용이면서 첫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 23개월, 기간제이면서 첫 일자리가 현 직장인 경우 21개월, 기간제이면서 첫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 14개월 순으로 높음.**
    - 남성은 첫 일자리가 현 직장인 경우 유지 기간은 비기간제상용 44개월(820천 명), 기간제 21개월(160천 명)로 비기간제상용이 23개월 더 유지 기간이 길. 첫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 유지 기간은 비기간제상용 23개월(1,130천 명), 기간제 14개월(1,315천 명)로 비기간제상용이 9개월 더 유지 기간이 길.
  - **비기간제상용으로 첫 일자리가 현 직장인 경우 여성과 남성 모두 약 4년 유지, 기간제로 첫 일자리가 현 직장인 경우 여성과 남성 모두 약 2년을 유지함.**
    - 2023년 20-34세 중 첫 일자리가 현 직장일 때 비기간제상용 여성은 49개월, 남성 44개월로 여성이 5개월 더 길며 남녀 모두 약 4년 동안 첫 일자리를 유지하였음. 첫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 비기간제상용 여성 24개월, 남성 23개월로 여성이 1개월 더 길고 남녀 모두 약 2년 동안 첫 일자리를 유지함.
    - 2023년 20-34세 중 첫 일자리가 현 직장일 때 기간제 여성 23개월, 남성 21개월로 여성이 2개월 더 길며 약 2년 동안 첫 일자리를 유지하였음. 첫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는 기간제 여성 15개월, 남성 14개월로 여성이 1개월 더 길며 약 1년 동안 첫 일자리를 유지함.

〈표 8〉 성별 비기간제상용여부별 첫 직장 유지 기간

(단위 : 개월, 천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여성-남성
		기간	근로자 수	기간	근로자 수	기간	근로자 수	
비기간제상용	첫 일자리가 현 직장인 경우	49	756	44	820	47	1,577	5
	첫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	24	1,354	23	1,130	24	2,484	1
	전체	33	2,110	32	1,950	33	4,060	1
기간제	첫 일자리가 현 직장인 경우	23	178	21	160	22	338	2
	첫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	15	1,223	14	1,315	15	2,538	1
	전체	16	1,400	15	1,475	16	2,876	1
전체	첫 일자리가 현 직장인 경우	44	934	41	980	42	1,914	3
	첫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	20	2,577	19	2,445	19	5,022	1
	전체	27	3,511	25	3,425	26	6,936	2

주 : 가중치 적용

자료 : 통계청,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 비기간제상용과 기간제 여성과 남성 모두 첫 일자리 퇴직 사유는 '근로여건 불만족'

- 비기간제상용과 기간제인 여성과 남성 모두 첫 일자리의 퇴직 사유는 '근로여건 불만족'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비기간제상용의 경우 남녀 모두 '개인 또는 가족적인 이유'인 반면 기간제인 경우는 남녀 모두 '계약기간이 끝나서'
- 2023년 여성은 비기간제상용과 기간제 모두 모두 '근로여건(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 불만족으로'가 첫 일자리를 퇴직 사유가 가장 높지만 비기간제상용이 기간제에 비해 14.6%p 더 높음. '계약기간이 끝나서'는 비기간제상용의 응답에는 없지만 기간제인 경우 21.1%로 두 번째로 높은 사유이며, '일이 임시적이거나 계절적인 일이 완료되어'는 기간제가 비기간제상용에 비해 6.8%p 더 높음.
    - 여성의 첫 일자리 퇴직 사유는 '근로여건(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 불만족으로'가 비기간제상용 706천명(52.2%), 기간제 460천명(37.6%)으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 비기간제상용의 경우 '개인 또는 가족적인 이유(건강, 가사, 육아, 결혼, 학업 계속 등)' 256천 명(18.9%), 기간제인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서' 258천명(21.1%) 순으로 높음.
  - 2023년 남성 비기간제상용과 기간제 모두 '근로여건(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 불만족으로'로 첫 일자리 퇴직 사유가 가장 높지만 비기간제상용인 경우가 기간제에 비해 12.7%p 더 높음. '계약기간이 끝나서'는 기간제만 응답하는데 14.4%로 두 번째로 높은 사유이며, '일이 임시적이거나 계절적인 일이 완료되어'는 기간제가 비기간제상용에 비해 5.7%p 더 높음.
    - 남성의 첫 일자리 퇴직 사유는 '근로여건(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 불만족으로'가 비기간제상용 640천명(56.7%), 기간제 579천명(44.0%)으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 비기간제상용의 경우 '개인 또는 가족적인 이유(건강, 가사, 육아, 결혼, 학업 계속 등)' 177천 명(15.6%), 기간제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서' 189천명(14.4%) 순으로 높음.
  - 비기간제상용과 기간제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근로여건 불만족'을 퇴직 사유로 응답한 비율이 높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개인 또는 가족적인 이유'가 사유로 더 높음.
    - 비기간제상용인 경우 첫 일자리 퇴직 사유는 여성과 남성 모두 '근로여건(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 불만족으로', '개인 또는 가족적인 이유(건강, 가사, 육아, 결혼, 학업 계속 등)' 순으로 높음. '근로여건(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 불만족으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4.5%p 더 높고, '개인 또는 가족적인 이유(건강, 가사, 육아, 결혼, 학업 계속 등)'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3.3%p 더 높음.
    - 기간제인 경우 여성과 남성의 첫 일자리 퇴직 사유는 '근로여건(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 불만족으로', '계약기간이 끝나서' 순으로 높음. '근로여건(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 불만족으로'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6.4%p 더 높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계약기간이 끝나서' 6.7%p, '개인 또는 가족적인 이유(건강, 가사, 육아, 결혼, 학업 계속 등)'가 3.5%p 더 높음.

〈표 9〉 성별 비기간제상용여부별 첫 직장 퇴직 사유

(단위 : 천 명, %, %p)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여성-남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비기간 제상용	근로여건(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 불만족으로	706	52.2	640	56.7	1,347	54.2	-4.5
	전공, 지식, 기술, 적성 등이 맞지 않아서	87	6.4	68	6.1	155	6.2	0.3
	직장이나 하고 있는 일이 전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145	10.7	131	11.6	276	11.1	-0.9
	개인 또는 가족적인 이유로(건강, 가사, 육아, 결혼, 학업 계속 등)	256	18.9	177	15.6	432	17.4	3.3
	창업 또는 가족사업에 참여하려고	23	1.7	35	3.1	58	2.3	-1.4
	일이 임시적이거나 계절적인 일이 완료되어	6	0.5	14	1.3	20	0.8	-0.8
	알바가 없거나 회사장이 어려워져서 권고직 및 정례해고 등으로	63	4.7	32	2.8	95	3.8	1.9
	직장의 휴업, 폐업, 파산 등으로 인해	47	3.5	17	1.5	65	2.6	2.0
	기타	20	1.5	16	1.4	36	1.4	0.1
전체	1,354	100.0	1,130	100.0	2,484	100.0	0.0	
기간제	근로여건(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 불만족으로	460	37.6	579	44.0	1,039	40.9	-6.4
	전공, 지식, 기술, 적성 등이 맞지 않아서	75	6.2	80	6.1	155	6.1	0.1
	직장이나 하고 있는 일이 전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75	6.1	127	9.6	201	7.9	-3.5
	개인 또는 가족적인 이유로(건강, 가사, 육아, 결혼, 학업 계속 등)	180	14.7	163	12.4	342	13.5	2.3
	창업 또는 가족사업에 참여하려고	20	1.7	19	1.4	39	1.6	0.3
	일이 임시적이거나 계절적인 일이 완료되어	89	7.3	92	7.0	181	7.1	0.3
	계약기간이 끝나서	258	21.1	189	14.4	447	17.6	6.7
	알바가 없거나 회사장이 어려워져서 권고직 및 정례해고 등으로	39	3.2	33	2.5	71	2.8	0.7
	직장의 휴업, 폐업, 파산 등으로 인해	20	1.6	17	1.3	37	1.5	0.3
기타	8	0.6	17	1.3	25	1.0	-0.7	
전체	1,223	100.0	1,315	100.0	2,538	100.0	0.0	
전체	근로여건(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 불만족으로	1,166	49.9	1,219	45.3	2,385	47.5	4.6
	전공, 지식, 기술, 적성 등이 맞지 않아서	162	6.1	148	6.3	310	6.2	-0.2
	직장이나 하고 있는 일이 전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220	10.5	257	8.5	477	9.5	2.0
	개인 또는 가족적인 이유로(건강, 가사, 육아, 결혼, 학업 계속 등)	436	13.9	339	16.9	775	15.4	-3.0
	창업 또는 가족사업에 참여하려고	44	2.2	54	1.7	97	1.9	0.5
	일이 임시적이거나 계절적인 일이 완료되어	95	4.3	106	3.7	201	4.0	0.6
	계약기간이 끝나서	258	7.7	189	10.0	447	8.9	-2.3
	알바가 없거나 회사장이 어려워져서 권고직 및 정례해고 등으로	102	2.6	65	3.9	166	3.3	-1.3
	직장의 휴업, 폐업, 파산 등으로 인해	67	1.4	35	2.6	102	2.0	-1.2
기타	28	1.4	33	1.1	61	1.2	0.3	
전체	2,577	100.0	2,445	100.0	5,022	100.0	0.0	

주 : 가중치 적용

자료 : 통계청,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 5. 첫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일 때 현재 일자리도 비기간제상용인 경우 69.9%인 반면 첫 일자리가 기간제일 때 현재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인 경우 36.6%

○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 상용일 때 현재 일자리도 비기간제상용인 경우는 69.9%이지만 첫 일자리가 기간제일 때 현재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인 경우는 36.6%로 첫일자리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일 때 현재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 69.9%, 기간제 11.9%인 반면 첫 일자리가 기간제일 때 현재 일자리는 비기간제상용 36.3%, 기간제 34.6%로 비기간제상용인 경우는 33.6%p 낮고 기간제인 경우는 22.7%p 높음.
-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 일 때, 현재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은 69.9%(2,837천 명)로 가장 높고, 기간제 11.9%(481천 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2%(129천 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0%(41천 명), 무급가족종사자는 0.6%(22천 명) 순임. 현재 일자리가 없고 구하지 않음은 11.3%(458천 명),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를 구함은 2.2%(91천 명)임.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인 경우 현재 일자리도 비기간제상용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함.
- 첫 일자리가 기간제상용 일 때, 현재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은 36.3%(1,045천 명)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간제 34.6%(994천 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3%(122천 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6%(45천 명), 무급가족종사자는 0.6%(19천 명) 순임. 현재 일자리가 없고 구하지 않음은 17.2%(496천 명),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를 구함은 5.4%(155천 명)임.

〈표 10〉 첫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의 고용형태 교차표(전체)

(단위 : 천 명, %)

구분		첫 일자리					
		비기간제상용	기간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전체
현재 일자리	비기간제상용	2,837	1,045	13	4	3	3,902
		69.9	36.3	10.6	9.6	9.7	54.7
	기간제	481	994	5	4	1	1,486
		11.9	34.6	4.4	8.9	4.6	20.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29	122	88	1	0	341
		3.2	4.3	74.3	2.5	0.0	4.8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41	45	1	32	3	123
		1.0	1.6	0.9	72.1	8.0	1.7
	무급가족종사자	22	19	0	0	22	63
0.6		0.6	0.0	0.0	68.3	0.9	
일자리 없음-구해봄	91	155	0	1	1	248	
	2.2	5.4	0.0	2.2	2.6	3.5	
일자리 없음-구하지 않음	458	496	12	2	2	970	
	11.3	17.2	9.9	4.7	6.7	13.6	
전체	4,060	2,876	119	45	33	7,13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가중치 적용

자료 : 통계청,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첫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 모두 비기간제상용인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높고, 첫 일자리 기간제이고 현재 일자리 비기간제상용인 경우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높음**

- 첫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가 모두 안정적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비기간제상용인 경우 여성은 65.7%, 남성 74.4%로 남성이 8.7%p 더 높고, 첫 일자리가 기간제이고 현재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인 경우 여성 34.4%, 남성 38.2%로 남성이 3.8%p 더 높음.
  -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일 때 여성과 남성 모두 현재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인 경우 여성 65.7%, 남성 74.4%로 가장 높았으나 여성과 남성을 비교할 때 남성이 여성에 비해 8.7%p 더 높음. 남성에 비해 여성은 일자리가 없고 구하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8.8%p 더 높음.
    -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인 경우 현재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인 경우는 여성 65.7%(1,386천 명), 남성 74.4%(1,451천 명)임. 현재 일자리가 기간제인 경우는 여성 12.3%(260천 명), 남성 11.3%(221 명)임.
    - 현재 일자리가 없고 구하지 않음은 여성 15.5%(327천 명), 남성 6.7%(131천 명), 현재 일자리가 없고 구해봄은 여성 2.6%(54천 명), 남성 1.9%(37천 명) 임.
  - 첫 일자리가 기간제일 때 현재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인 경우는 남성 38.2%, 여성 34.4%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3.8%p 더 높고, 현재 일자리가 기간제인 경우는 여성 34.4%, 남성 34.7%로 남성이 0.3%p 더 높음.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를 구하지도 않은 경우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7.9%p 더 높음.
    - 첫 일자리가 기간제인 경우 현재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은 여성 34.4%(481천 명), 남성 38.2%(563천 명) 임. 기간제인 경우는 여성 34.4%(482천 명), 남성 34.7%(512천 명)임.
    - 현재 일자리가 없고 구하지 않음은 여성 21.3%(298천 명), 남성 13.4%(198천 명), 일자리가 없고 구함은 여성 5.0%(70천 명), 남성 5.8%(85천 명) 임.

〈표 11〉 성별 첫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의 고용형태 교차표

(단위 : 천 명, %)

		첫 일자리											
		비기간제상용		기간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전체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현재 일자 리	비기간제상용	1,386	1,451	481	563	3	10	3	1	3	0	1,877	2,025
		65.7	74.4	34.4	38.2	5.2	15.2	23.4	3.1	20.1	0.0	52.2	57.3
	기간제	260	221	482	512	2	3	0	4	1	0	746	740
		12.3	11.3	34.4	34.7	4.0	4.7	0.0	13.1	9.5	0.0	20.8	20.9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60	69	48	75	40	49	0	1	0	0	148	193
		2.9	3.5	3.4	5.1	73.4	74.9	0.0	3.7	0.0	0.0	4.1	5.5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3	28	10	35	0	1	9	23	0	3	32	90
		0.6	1.5	0.7	2.4	0.0	1.6	61.9	77.0	0.0	15.6	0.9	2.6
	무급가족종사자	10	12	11	7	0	0	0	0	10	13	31	32
		0.5	0.6	0.8	0.5	0.0	0.0	0.0	0.0	61.5	74.7	0.9	0.9
일자리없음 -구해봄	54	37	70	85	0	0	1	0	0	1	125	123	
	2.6	1.9	5.0	5.8	0.0	0.0	6.8	0.0	0.0	5.1	3.5	3.5	
일자리없음 -구하지 않음	327	131	298	198	9	2	1	1	1	1	636	333	
	15.5	6.7	21.3	13.4	17.4	3.6	8.0	3.1	9.0	4.6	17.7	9.4	
전체	2,110	1,950	1,400	1,475	54	65	15	30	16	17	3,595	3,53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가중치 적용

자료 : 통계청,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 Ⅲ. 요약 및 시사점

첫 일자리를 기간제로 시작한 경우 비기간제상용으로 이행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는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첫 일자리로 갖기 위해 취업을 늦추는 전략을 취하는 요인일 수 있음

- 2023년 15-34세 청년층은 25-29세 3,513천 명(29.6%), 고졸이하 6,314천 명(53.2%),미혼 9,918천 명(83.6%)이 가장 많음.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해 25-29세와 대졸이상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유배우자 비중이 낮아짐.
- 2023년 20-34세 청년층은 첫 일자리 취업 시 97.2%가 임금근로자로 취업하며 비기간제상용은 56.9%, 기간제는 40.3%임. 남성보다 여성이 비기간제상용이 첫 일자리의 고용형태인 경우가 더 높음(여성 58.7%, 남성 55.1%).
-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인 집단은 기간제인 집단에 비해 남녀 모두 연령은 30-34세, 교육 정도는 대졸이상, 혼인상태는 유배우자 비중이 더 높음.
  -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과 기간제인 집단 모두 여성은 대졸이상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남성은 비기간제상용인 경우 대졸이상, 기간제인 경우 고졸이하의 비중이 높아 차이가 나타남.
- 2023년 20-34세 청년층의 첫 일자리의 특성임.
  - 여성과 남성 모두 비기간제상용 및 기간제 모두 전일제의 비중이 높지만, 기간제일 때 시간제의 비중이 높아짐.
  - 비기간제상용 여성과 기간제인 남녀 모두 첫 일자리 월평균 급여액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가장 높지만 비기간제상용인 남성의 월평균 급여액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가장 높음.
  - 첫 일자리 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비기간제상용이 기간제에 비해 전반적으로 긴 편임.
  - 여성은 첫 일자리의 직업이 관리자·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판매 종사자에 집중되어 있으나 남성은 모든 직업에 여성에 비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여성은 기능·기계숙련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에서 그 비중이 낮음. 그리고 여성과 남성 모두 비기간제상용에 비해 기간제인 경우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비중이 높음.
  - 일자리 유지 기간은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이면서 첫 일자리가 현 직장인 경우의 여성이 49개월로 가장 길고 다음으로 같은 조건의 남성이 44개월로 약 4년을 유지함.
  - 비기간제상용과 기간제인 여성과 남성 모두 첫 일자리의 퇴직 사유는 '근로여건 불만족'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비기간제상용의 경우 남녀 모두 '개인 또는 가족적인 이유로'인 반면 기간제인 경우는 남녀 모두 '계약기간이 끝나서'임.
-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일 때 현재 일자리도 비기간제상용인 경우는 69.9%이지만 첫 일자리가 기간제일 때 현재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인 경우는 36.6%로 33.6%p의 차이가 있음.
  - 첫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가 모두 안정적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비기간제상용인 경우 여성은 65.7%, 남성 74.4%로 남성이 8.7%p 더 높고, 첫 일자리가 기간제이고 현재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인 경우 여성

34.4%, 남성 38.2%로 남성이 3.8%p 더 높음.

- 여성과 남성 모두 첫 일자리를 기간제로 시작한 경우 비기간제상용직의 이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상황은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인 비기간제상용직과 같은 일자리를 첫 일자리로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취업 준비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요인일 수 있음.
- 일자리가 없으나 일자리를 구하지도 않았다는 응답은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에 비해 기간제가 더 높고 이를 성별로 비교해보면 여성이 더 높아 구조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성별 차이도 보이고 있어 일 자리가 없지만 구하지도 않은 청년층의 원인이 무엇인지 추가적인 분석을 통한 정책지원이 필요함.

## 참고문헌

- 통계청(2023.7).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2013)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2023) 마이크로데이터.